

#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 麻浦區 桃花洞 18-2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409호  
 電 話：702-4301

## ’89 山林事業用 苗木價格 決定

山林廳은 ’89 山林事業에 쓰여질 ’88 年度產 苗木 價格을 決定 告示하였다.

山林廳은 ’88. 12. 2. 山林事業用 種苗價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 ’88 年度產 苗木價格을 決定 告示하였는데 ’87 年度產 價格과 對比하면 樹種에 따라 差異가 있으나 全體平均 約 10.0%가 올랐다.

引上된 要因은 주로 人件費 上昇에 起因된 것으로 分析되었으며 잣나무 4 年生 成苗는 千本當 95,000 元으로서 5.5% 落葉松 2 年生은 74,000 元으로 19.3%가 各各 올랐다.

수종별 묘목가격은 別표와 같다.

### 1988 年度產 苗木 ( 成苗 ) 價格

樹 種	苗 令	’87 產價格	’88 產價格	引 上 率	備 考
강 잣 나 무	송 1-1	40,000	48,000	20.0%	
	무 2-1	80,000	89,000	11.2	
	2-2	90,000	95,000	5.5	
	2-2-3	757,000	735,000	△ 2.9	○ “분” 뜨기 苗木
낙 엽 송 나 무	송 1-1	62,000	74,000	19.3	
	무 1-1	73,000	87,000	19.1	
편 백	1-1-1	116,000	129,000	11.2	
	1-1	75,000	90,000	20.0	
	1-1-1	117,000	130,000	11.1	
	1-2-2	624,000	636,000	1.9	○ “분” 뜨기 苗木
해 리 기 다	송 1-1	39,000	46,000	17.9	
	다 1-0	20,000	25,000	25.0	
	1-1	35,000	42,000	20.0	
	1-1-2	516,000	532,000	3.1	○ “분” 뜨기 苗木

樹 種	苗 令	'87 生産價	'88 生産價	引 上 率	備 考
리 기 레 타	1 - 0	20,000	24,000	20.0	○ “분” 뜨기 苗木
	1 - 1	35,000	42,000	20.0	
스트로브잣나무	2 - 1	89,000	100,000	12.3	
	2 - 2	117,000	124,000	5.9	
버지니아소나무	1 - 1	46,000	47,000	2.1%	
테 다 소 나 무	1 - 0	26,000	32,000	23.0	
상 수 리 나 무	1 1 - 0	49,000	54,000	10.2	
자 작 나 무	1 - 0	53,000	66,000	24.5	
물 푸 레 나 무	1 1 - 0	39,000	48,000	23.0	
느 티 나 무	1 - 0	57,000	71,000	24.5	
들 메 나 무	1 - 1	-	110,000	-	
독일가문비나무	2 - 2 - 2	690,000	699,000	1.3	
이태리포플러	c1/1	191,000	229,000	19.9	
양 황 철 나 무	c1/1	191,000	229,000	19.9	
수 원 포 플 러	c1/1	191,000	229,000	19.9	
현 사 시 나 무	c1/1	200,000	240,000	20.0	
밤 나 무	고 접	228,000	268,000	17.5	
	저 접	370,400	434,000	17.3	
아 까 시 나 무	1 - 0	35,000	43,000	22.8	
산 오 리 나 무	1 - 0	49,400	61,000	23.4	
사 방 오 리 나 무	1 - 0	46,000	54,000	17.3	

※ 附 帶 條 件

- 本 苗木은 檢査合格率 95% 以上の 苗木 (不合格 5% 未滿包含) 에 對한 基準價格이고 大苗木은 檢査合格率 100% 基準價格임.
- 價格에는 苗木生産費의 2% 該當額의 災該損費가 包含된 價格임.
- 價格은 完全包裝하고 (“분” 뜨기 苗木은 새끼뭉기와 비닐싸매기) 所定의 品質保證票를 添附하여 車道에서 引渡하는 價格임.  
但, 분뜨기 苗木은 上車引渡價格임.

무심코 버린불씨, 금수강산 재가된다.

## 原木集荷場 開場 — 山林廳

— 경기 가평, 경북 점촌에  
평창, 제천은 내년도 계획에 —

산림청은 국내최초로 경기도 가평과 경북 점촌에 목재집하장을 개장, 국산목재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목재가격의 안정을 기하는데 도모키로 했다. 산림청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총 2억 8천 1백만원을 투입, 2천여평에 이르는 목재집하장을 23일 개장하는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경북 점촌군 신기면에 2억 2천 7백만원을 투입, 3천 7백여평 규모의 목재집하장을 개장키로 했다.

이번에 개장되는 목재집하장은 해당 郡산림조합에서 운영토록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산에 있는 나무를 매입, 직접생산, 판매토록 하고 산주가 벌채한 원목을 매입, 판매하며 산주가 벌채한 원목을 위탁판매하고 영세산주의 벌채대행과 위탁판매등의 도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내최초로 목재집하장을 설치, 개장함으로써 앞으로는 국산재의 유통구조를 축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림계통조직을 통한 수급으로 목재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산재의 이용률을 높이고 산림소득을 높이며 산림조합을 통한 유통정보기능 및 공급, 알선센터로 정착시킴으로써 전문 작업단에 의한 벌채대행시업이 전망된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도에도 목재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목재가 많이 생산되는 강원도평창군과 충북 제천군에 각각 목재집하장을 설치키로 하고 계획을 추진중이다.

### 山林經營用語

- 傘伐作業 ( shelter-wood system ) : 天然 下種更新을 돕기위하여 豫備伐을 먼저 시행하여 母林의 結實을 촉진하고 林地의 種子着床상태를 좋게 한다음 種子結實이 良好한때에 下種伐을 해서 稚苗의 發生을 돕고 母樹의 보호가 下必要하게 될때 後伐을 해서 更新을 끝내는 방법.
- 生理的輪伐期 ( 自然的 伐期令 ) : 天然更新에 알맞을때를 伐期令으로 하거나 또는 林木의 自然枯死의 時期, 健全한 最老年令을 伐期令으로 할때를 말한다.

## 山林經營遺憾

(前號에서 계속)

(本會理事) 千 正 夏  
(營林公社)

- 營林計劃-山主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제도가 영림계획인데 영림계획만큼 산주의 사랑은 고사하고 산주에게 거추장스러운 제도도 드물다. 영림계획제도가 실시된지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산주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느낌이다. 영림계획이 산주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산림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산림법제 8조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임목은 40년이건 50년이건 벌기령중에 매년 계속해서 사업을 요하지 않는다. 벌기령중 시업이 있는 기간은 조림 1년, 하예작업 3년, 가지치기 간벌등 무육작업 3~4년 합해서 7~8년 밖에 시업이 없다. 산림소유규모가 최소한 50ha 이상되면 몰라도 10ha미만의 산림소유자가 전체의 95% 이상인 우리나라 산주들이 매년 무슨 시업이 있겠는가. 시업없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작성하라는 것은 잘못이다. 또 산주가 작성하지 않으면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작성토록하고 그 경비는 산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더더욱 잘못이다. 시업없는 계획을 산림소재지나 산주의 이름, 수종면적등 몇가지 기록하여 카드 한장 만들어 놓고 영림계획 작성했다고 경비를 부담함은 시간과 경비의 낭비일 뿐이다.

영림계획은 작성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성된 영림계획이 산림경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산림행정이 산주를 불신하고 또 산주의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 산주가 영림계획을 작성하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산림조합에서 작성하면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뜩이나 산림경영에 무관심한 산주들에게 투자의욕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 산주가 집행해야 할 경영계획은 어떻게 해서라도 산주가 작성하도록 지도, 편달하여야 한다. 못한다고 핑계치면 영영 못하게 된다. 개인재산을 누가 경영한단 말인가

세째는 영림계획 인가 제도이다.

산주나 산림조합에서 장기간 조사하여 작성 영림계획을 인가권자인 군에서는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현지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벌채량만을 이미 배정된 벌채 허용량에 맞추기 위하여 조정하고 있는 현 실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어느 농대 연습림에서 신청한 영림계획이 벌채량이 많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영림계획 인가 과정에서 임

상과 산주의 경영방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제는 영림계획 작성요령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 임업진흥 촉진지역을 설정하면서 영림계획 작성요령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고 어렵게 되어 있어서 산주가 작성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든다. 산주는 고사하고 전 임업인 중에서도 그 요령대로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문이 갈 정도다. 교육받은 군청직원도 잘 모른다니 하는 말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토양을 12 단계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분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활착에 예민한 산림수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학술적이란 생각이 든다. 또 첨부서류가 너무 많다. 산림조사는 조사자 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인가 권자가 항상 지적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산림조사에 힘쓰는것 보다 인가에 더 힘쓰게 된다.

사유림 행정은 그 대상자가 어디까지나 산주다. 산주의 수준을 고려해서 더욱 쉽고 간단하고 실용성있게 고쳐서 산주가 작성해서 산주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유림 영림계획제도는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사유림행정은 걸들기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 山林經營 自律化 - 말만들어도 속이 시원한 문구다. 산림청장의 연두사나 축사등에서 많이 들어 왔기때문에 정말 산주가 자기산을 자기체질에 맞는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되는가보다 싫어서 경영자율화란 말을 들을때마다 가슴이 부풀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벌채허가제도나 사업신고제도나 다를 바 없었고 자율화 기치아래 나온것이 사업신고 수리제도다. 인가된 영림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고로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할텐데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꼬리를 달고 있다. 인가권자의 결재가 남아한다는 점에서는 매 한가지다.

검인타기 제도가 혼란기 도별이 심할 때 부득이한 조치로 그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의식구조가 도별을 할정도로 낙후된 상태가 아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생산된 원목을 검인타기 때문에 제때에 납품하지 못하여 사업상 지장을 초래한 예가 허다하고 검인타기 신청을 하면 바빠서 나갈 여지가 없다고 할때는 얼마나 사정을 해야하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원목은 부피가 크고 산원의 집재장소는 좁고 하기때문에 벌채기간중 수 차례 겪어야 한다. 도별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면 그 명분은 없어졌고 애로사항만 남아 있는 검인타기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신고 필증에 인가된 임목제적 이외의 임목을 벌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개월이상 6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산림에 있어서 정확한 임목재적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근사치일 뿐이다. 이 근사치를 가지고 행정도 하고 사업도 한다. 영림계획 인가때나 시업신고 필증교부때나 인가권자가 현지 답사하여 신고된 수량이 맞다고 보고 영림계획도 인가하고 시업신고 필증도 발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벌채구역을 위반할일 없이 수량이 초과되었다고 산주에게만 벌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와 같이 생산원목에 검인을 찍는제도라든가 인가된 영림구역내에서의 벌채량이 영림계획 인가량보다 많다는 이유로 산주에게 벌을 주는 제도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기도 하거니와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경영자율화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山主가 山林經營自律化를 갈망하는 것이 주제 넘는 일인가는 모르겠으나 산업의 발전은 관 주도형 보다 자율적인 경영체제위에 바탕을 두어야 튼튼하기 때문에 林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산주의 의사대로 되는것이 하나도 없는것이 오늘의 산림경영이다. 산림경영자율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길,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또 내일도 가야할 山主의 길이다.

끝.

山 林 害 虫 防 除  
시 리 즈 ④

## 솔 꺾 질 깎지 벌레

### 1. 가해수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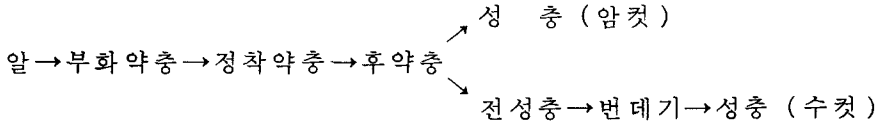
해송, 적송

### 2. 가해양상

- 부화약충이 소나무 줄기위를 기어다니며 나무껍질밑의 적당한 장소를 찾아 정착
- 대부분의 곤충과는 달리 한번 정착하면 성장을 끝마칠때까지 장소를 옮기지않음.
- 정착한 유충은 가늘고 긴입을 나무에 꽂고 수액을 흡수하여 가해
- 피해를 받은 나무는 대부분 아랫 가지부터 적갈색으로 고사하며 3~5월에 가장 심하게 나타남.
- 해송과 적송 모두를 가해하나 주로 해송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해안지방으로의 확산속도는 빠른편이나 내륙지방으로의 확산은 느린편임.

### 3. 생활사

- 수컷은 번데기 시기를 거치나 암컷은 후약충에서 직접 성충으로 우화함.



- 주로 부화약충이 바람에 날려 이동, 확산을 하나 가까운 거리에서는 간혹 알주머니가 바람에 날려 확산되는 수도 있음.

연 중 생활 경과 표

월 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충 태													
알					▲								
전 약 충	부화약충					▲							
	정착약충				▲								
후 약 충		▲										▲	
번 데 기 (♂)				▲									
성 충				▲									

※ 1년에 1회 발생, 후약충으로 월등

#### 라. 방 제 법

- 피해진전 방향에 있는 미발생지로서 밀생임분은 열세목을 간벌하여 잔존 우세목의 수세를 높임으로서 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임.
- 농약의 남용을 피하여 천적(무당벌레)을 보호.
- 피해목 벌채는 7~9월에 실시하여 피해확산을 막음.
- 특수목에 한하여 약충 부화기인 5월에 10일간격으로 수프라사이드 또는 디메토 유제를 2~3회 주간 및 가지에 골교루 살포.
- 피해초기 임분에 12~1월중 포스팜(다이메크론) 50% 액제를 흉고직경 1cm당 0.6~1.0 cc씩 수간에 주입한다. (수간주사 요령은 솔잎혹파리와 동일)
- 9~11월중 1개월간격으로 3회에 걸쳐 테믹 15% 입제를 근부처리.

# 표고자목용 原木準備와 冬期楢木管理

李 元 珪

( 林業研究院 研究官 )

## 1. 原木準備

### 가. 適期伐採木의 管理

伐採適期인 黃葉中期가 全國에 걸쳐 지나 갔으므로 既 伐倒木에 대하여 樹幹의 直射日光防止等 管理를 하여 含水率이 適正狀態가 되면 斫棟 (도막치기) 를 한다. 伐倒木에 잎이 붙어 있으면 乾燥가 잘되어 그 期間은 小. 中徑木에 있어서는 60日, 大徑木이나 老木에서는 100日이면 斫棟을 할 수 있는 狀態가 된다. 樹種別로 보면 졸참나무 같은 樹皮가 얇은 樹種은 乾燥期間이 짧고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厚皮樹種은 乾燥期間이 比較的 長다. 乾燥가 完了된 狀態를 알아보는 方法은 다음과 같다.

- ① 伐採木 元口의 中心에서 直徑 5~8cm程度 갈라짐이 생겼을 때
- ② 新稍를 꺾으면 黃變時 (生木은 黃綠色)
- ③ 伐採原木의 樹皮에 龜裂이 생기기 始作할 때 (樹皮가 두꺼운면 龜裂이 빠르다.)
- ④ 잘드는 도끼로 樹皮를 찍으면 탄닌의 附着이 적다. (날에 紫色으로 變함)
- ⑤ 水分計로 測定한 含水率이 10~20% 減少하였을 때 (重量을 測定해서 判定)
- ⑥ 原木을 切斷하면 20~30分 後에 切口가 하얗게 乾燥한다.

乾燥가 完了되면 斫棟을 한다. 斫棟한 原木의 管理方法은 生표고 栽培와 乾표고 栽培에서 多少 다르다. 生표고 栽培에서는 短期間에 集中發生을 目的으로 斫棟後의 原木은 長時間 直射日光을 받아 樹皮를 酸化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特히 生木狀態에 가까운 原木을 4月以後 (벚꽃開花時間) 에 直射日光을 받게하면 害菌의 得人이나 活着不良이 일어나기 쉬워 좋은 楢木을 만들기 어렵다. 生표고 栽培는 購入原木을 使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原木은 生木狀態이므로 표고 菌絲의 伸長이 어려워, 가능한 早期에 原木을 入手하여 그늘에서 風乾시킨다. 乾표고 栽培는 長期間에 걸쳐 發生하는 경우는 큰 問題는 아니나 역시 樹皮面이 硬化한 原木은 좋지 않다.

斫棟한 原木은 接種作業地에 運搬하여 굵기별로 區分하여 積置하고 被覆하여 接種時까지 保管한다. 乾燥地帶에서는 비닐로 쌓아서 乾燥을 防止한다.

### 나. 아직 伐採하지 못한 境遇

伐採適期가 지나고 冬期의 樹木休眠期에 들어가 있다. 이 期間은 봄의 樹液流動前까지 繼續되나 乾燥를 위하여 可及的 速히 伐採를 하여 乾燥가 不足한 原木에 接種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伐採時期가 늦어 乾燥期間이 짧으면 井字쌓기를 하고 通風이 잘 되도록 하여 過濕原木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다. 斫棟時의 注意点

가지를 칠때 가지가 着生部에서 가지에 直角되도록 切斷한다. 가지着生部周邊은 材組織이 치밀하고 樹皮의 골이 많고 表皮의 面積이 넓어 良質의 버섯이 많이 發生한다. 同時에 害菌의 侵入이 쉬운 部分이므로 切斷面은 될 수 있는대로 小面積이어야 한다.

主幹部에는 많은 死節이나 枯枝가 있으며 이곳에는 全部 害菌이 着生되어 있어 이 害菌이 原木의 伐採와 同時에 旺盛한 發育을 始作하므로 斫棟時에는 注意하여 全部 除去하여야 한다.

伐倒木 乾燥中 地中에 埋沒되어 있던 部分이나 地面에 接하였던 部分은 斫棟과 同時에 接地部를 위로 向하게 하여 數日~10日程度 再乾燥하여 “기와층버섯”의 着生을 적게한다.

斫棟時 樹皮의 龜裂이 생긴것은 楢木을 세울 때 龜裂部(乾燥部)를 밑으로 오게하여 原木內에 上下 水分의 差가 없게한다. 이러한 龜裂木은 厚皮大徑木이나 元口側에 첫째 原木에 많다.

## 2. 冬期楢木管理

冬期에는 표고生産이 거의 안되어 楢木場管理에 關心이 적을수 있으나 본 표고의 生産을 위하여서는 冬期에도 不斷히 楢木場을 살펴봐야 한다.

주간에도 어두운 楢木場은 溫度의 變化가 적어 數量이 적던가 良品生産이 어렵다. 理想的인 楢木場은 소나무와 活雜木의 混淆林인데 여름에는 그늘이 짙어 直射光을 피하고 겨울에는 落葉이 지므로서 따뜻하게 되는등 自然的으로 그늘이 調節된다. 잣나무林 같은데는 自然的인 그늘 調節이 되지않아 放置하면 어두운 狀態가 계속된다. 이러한 곳은 間伐이나 가지치기 등을 하여 밝게 하여 주어야 하며 겨울엔 다른 季節에 안들던 直射光이 들어오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測定防止 시설도 必要하다.

겨울에 눈이 안오거나 적게 오는 地方엔 楢木이 乾燥하기 쉬운데 이때는 낮이 0℃ 이상인 때 給水를 하던가 地面에 뉘어 놓아 水分을 吸水토록하고 봄에 早期에 給水가 가능하게 될때 給水를 한다.

古楢木의 發生準備를 위하여서는 新楢木보다 더 많은 水分(45~55%)과 강한 低溫刺戟이 必要하므로 最終寒疾前(2月下旬頃)에 撤水凍結시킴이 必要하다. 產地의 눈이 많이오는 곳에서 눈이 굳기전에 뉘어서 楢木이 地面에 닿게하여 水分을 吸收시킨다. 또한 古楢木은 水分吸收를 돕기위하여 도끼나 가지치기는 낮等으로 樹皮를 짝어 木質部까지 보이게 한다. 이 作業은 1~2월에 하면좋고 樹皮가 두껍고 發生이 적은 廢木直前の 古楢木에 效果가 크다.

1年生 楢木은 低溫性品種일 경우 完熟楢木이 안되었으므로 井字쌓기를 하여 枝葉이나 거적 같은 것으로 被覆하여 주거나 모아세워서 被覆하여 주면 菌絲의 伸長이 빨라서 봄에 自然發生하던가 降雨時 잘 發生한다. (林産버섯 第9號에서 拔萃)

내가 좋아 가는 산에 내가먼저 불조심

# 느티 나무

## Zelkova Serrata Makino

김 종 원  
(임업연구원 연구관)

### 1. 특 성

우리나라 전지역의 계곡부 산록부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장수목(長木壽) 중의 하나이다. 음지나 양지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며 심근성(深根性)이고 옮겨심기에도 잘 적응하므로 녹음수(綠陰樹) 기념식수로 많이 식재한다. 내음성은 강하나 건조에 약하여 집단식재를 싫어한다. 목재는 무늬와 색깔이 아름다운 최고급재로서 일명 괴목(槐木)이라 한다. 나이테가 뚜렷하고 심재는 황갈색 또는 황색을 띤 홍갈색이며 변재는 옅은 황갈색이다. 단단하고 무거우며 갈라지거나 비틀리지 않고 보전성(保全性)이 강해 치장무늬목으로 적당하다. 건축재, 가구재, 단판, 차량재, 선박재, 토목용재, 기계기구재, 악기재, 상자재등으로 쓰인다.

### 2. 적 지

전국에 조림이 가능하며 산록, 계곡, 마을주변의 배수가 잘되고 통기(通氣)가 잘 되는 중성토양에서 잘자란다.

### 3. 種子採取

種子採取는 11月頃에 樹令 50年 以上된 나무에서 落下한 着果短枝를 모아서 3-7日間 通風이 잘 되는곳에 놓아 乾燥시킨후 몽둥이로 두들겨 精選한 다음 氣乾 貯藏한다. 2-3年間 貯藏이 必要한 경우는 含水率 10%되는 種子를 密封容器에 넣어 5℃ 冷藏庫에 貯藏한다. 다음해 봄에 播種할 種子는 播種 2個月前에 露天埋藏하였다가 播種한다.

### 느티나무 種子品質

純量率	容積重 (1ℓ當)	實重 (1,000粒當)	粒數		發芽率	效 率
			1 ℓ	1 kg		
94.9%	505,39 g	16.115 g	32,052 粒	63,420 粒	61.5%	58.4%

#### 4. 養苗施業

3月下旬 - 4月上旬頃に 露天埋藏된 種子를  $m$ 當 100 g (0.2  $\ell$ ) 씩 撒播한다. 覆土는 5 mm 정도의 두께로하고 벗짚을 깎다. 播種後 2~3 週가 지나면 一齊히 發芽하는데 發芽가 끝나면 벗짚을 걷어내고 해가림을 해준다. 벤곳은 흐린날 速으기를 하여  $m$ 當 81本 内外가 되도록 한다. 1年生 苗木은 30 cm内外가 되는데 30 cm以上 되는 것은 山出이 可能하나, 이듬해에  $m$ 當 64本을 床替하여 1-1로 山出하는것이 造林後 撫育하는데 便利하다.

#### 5. 造 林

너무 드물게 심으면 줄기가 곧게 자라지 않고 굵은가지가 여러갈래로 갈라져서 자라므로 통직한 목재를 생산할 수 없고 너무 베게 심으면 피압되어 고사하는 본수가 많아진다. 느티나무는 집단식재를 싫어하는 수종이므로 어릴때 생장이 느린 상수리나무, 잣나무등과 혼식하고 나무가 커감에 따라 다른수종을 제거하거나 혼효림으로 무육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재본수는 느티나무 1,000 - 1,500본, 타수종 2,000 - 2,500본의 비율로 핵타당 3,000본을 식재한다.

#### 6. 풀베기

모두 베기작업으로 식재후 3 - 4년간 실시하는데 느티나무는 잠관목과 구별이 잘않되므로 작업시 세심한 주의를 해야한다.

#### 7. 잡목숙아베기

나무줄기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 부정아 발생이 많고 줄기가 여러갈래로 갈라지기 쉬우므로 하층식생은 남기고 느티나무 생장에 방해가 되는 나무만 제거한다. 줄기가 여러갈래로 갈라진 것은 결가지를 쳐서 곧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8. 간 벌

느티나무는 밀도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므로 경합이 되는 나무는 자주 간벌하여 남은나무가 잘자라도록 한다. 느티나무는 단순림이 거의 없어 나무가 커감에 따른 기준본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죽은 가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간벌을 실시한다.

會 員 動 靜 12 페이지에서 계속

- 本會 臨時理事會 開催 : 본회는 88.12.13 본회가 들어있는 서울대 동창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입야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등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토의.

結 婚

- 趙大奎 본會부회장의 參男 鏞佑君의 결혼식이 12.25. 12:00에 점촌 피닉스 예식장에서 있음.
- 崔炳珠 본회 경북지부장은 지난 11.26~12.11까지 홍콩, 태국, 말레시아, 싱가포르, 보르네오등 동남아를 순방하고 귀국.

## 林業界消息

- 林業團體長懇談會 : 노건일 산림청장은 88.12. 5 산림청에서 임업단체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산림법, 산림조합법 개정안등 당면 주요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 山林廳長諮問委員會開催 : 노건일 산림청장은 88.12.19 산림청 회의실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안문제등에 대하여 의견교환.
- '88 篤林家表彰 : 노건일 산림청장은 88.12. 8일 山地資源化 施策에 적극호응하여 山林을 시범적으로 경영한 독립가를 선발하여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장을 전수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申一徹 : 가평군 북면 제령리 48
  - 劉玉鍾 : 정읍군 산내면 능교리 71
  - 金炳一 : 홍천군 내면 광원리 1450
  - 李相燮 : 광주직할시 서구 양림동 128
  - 朴大圭 :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42
  - 鄭素永 : 포항시 죽도동 619 -2
  - 朴建用 : 서산군 인지면 차리 694
  - 陳琦用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37-2
- '88 林產物 輸出有功者에 施賞 : '88 . 12. 7. 산림청은 '88 임산물 수출증대로 功이 큰 有功者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표창, 산림청장 표창을 시상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한국목재공업 협동조합	이 사 장	단 체	공 로 패
관 세 청	행정사무관	천 홍 국	표 창 장
식물검역소 부산지소	농 립 기 원	안 희 동	"
산 립 청	행정사무관	이 철 우	"
육 기 상 사 (주)	대 표 이 사	김 동 길	감 사 패
태 풍 상 사 (주)	"	김 남 철	"
홍 진 상 사 (주)	"	홍 순 의	"
선 창 기 업 (주)	"	강 장 무	"
대 판 교 역 (주)	대 표 취 체 역	조 용 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출장소	기 좌	양 일 석	표 창 장

- 柳鍾根 營林局長 停年退任 : 山林廳 營林局長 柳鍾根씨의 정년퇴임식이 12.14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공무원, 가족 친지등 많은 임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柳局長은 1945년 해방되던해 조선총독부에 산림공무원으로 발을 들여 놓은이래 만 44개 성상을 오직 임업에 외끌수르만 봉직해 왔었다.

## 會 員 動 靜

- 本會 海外 林業視察團 歸國 : 本會 이규현 모범독립가를 단장으로한 일행 7명(이규현, 이동호, 이덕용, 김지근, 윤주국, 임주빈, 최동균)은 지난 11.16부터 12. 1까지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등 임업시찰을 마치고 귀국